

앨리스 쏘턴의 자서전에 나타난 여성의 몸 읽기

임 정 인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1.

영문학사에서 근대적이고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자서전이라는 장르가 본격적으로 개화하기 시작했던 시점을 17세기 후반까지 거슬러 올라가 잡을 수 있다면, 이 시기에 집필되었던 앨리스 쏘턴(Alice Thornton, 1626/7~1706/7)의 자전적 매뉴스크립트는, “왕정복고 시대에 개인적이고 자성적인 문학 장르로 개념화 되기 시작한” 이 장르에서 선구적 작품으로 불릴 만하다(로우즈 245-7).¹⁾ 이 매뉴스크립트에서 쏘턴은, 자서전이라는 장르를 규정하기 시작했던 근대초기 다른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사적이고 내밀한 자신의 삶을 글로 재현하는 과정을 통해 일관되고 통찰력 있는 자아를 빚어내고자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쏘턴은 요크셔(Yorkshire)에 뿌리를 둔 유서 깊은 젠트리 가문 출신으로, 아일랜드 총독 등을 지냈던 크리스토퍼 완더스포드(Sir Christopher Wandesford)의 딸로 태어

1) 자서전의 장르적 규범과 초창기 자전 작가들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Peterson, L. H.(1993: 80)과 M. B.(1986: 245-7)의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주 제 어: 앨리스 쏘턴, 자서전, 모(성)체, 질병, 섭리, 주체 형성

Alice Thornton, autobiography, maternal body, sickness, Providence, self-empowerment

났다. 부친 사후(1640), 청교도 혁명(1640~60)을 겪으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 가문을 구하기 위해 이스트 뉴턴(East Newton) 출신의 윌리엄 쏬턴(William Thornton)과 정략 결혼했으며, 남편과의 사별(1688)을 계기로 출생으로부터 미망인이 되기까지의 자신의 인생에 대해 회고록을 쓰게 된다. 이 자전적 매뉴스크립트는 훗날 큰 딸에게 유산으로 남겨지며, 19세기 말에 이르러 『앨리스 쏬턴 부인의 자서전』으로 편집, 출판된다.

쏬턴의 자서전에서 근간을 이루는 것은 본인과 가족의 병력과 죽음에 대한 회고이다. 자서전에서 드러나다시피 쏬턴은 일생을 통해 뿌리 깊은 왕당파였고 신심 두터운 성공회 신자였다. 따라서 그녀는, 차알스 2세 처형와 크롬웰 집권 등으로 이어지는 17세기 중후반 영국사회의 격변하는 정치적 상황에 좌지우지 되는 일생을 살 수 밖에 없었고, 동시에 집안 안팎에서 끊이지 않는 재정적인 문제와 유산을 둘러싼 싸움에 일평생 휩싸여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삶을 공적 공간 안에서 돌이켜 보려 하지는 않는다. 그녀는 경제, 정치, 사회, 국가적인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자신의 삶에 투영하는 대신, 끊임없이 다치고 앓아눕는 사람의 몸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통로를 통해서 삶을 기억한다. 그녀의 글쓰기에서 일차적 관심사는, 출혈, 낙상, 자상, 화상 등등 크고 작은 사고들로부터, 열병, 우울증, 천연두, 중풍, 학질 등의 각종 질병에 이르기까지, 자기 자신과 애지중지하는 자식들, 남편을 포함해 가까운 가족과 친지들의 삶에 잠시도 쉬지 않고 다양한 모습으로 끼어드는 죽음의 그림자를 기록하는데 있다.

쏬턴이 병들고 다치고 죽기 마련인 사람의 몸에 천착하는 이유는, 인간의 의지가 어이없이 꺾이는 불가항력적인 순간들을 세세히 기술하는 과정을 통해, 아무 의미 없이 신산하기만 했던 인생은 다름 아닌 은혜로운 신의 뜻이었다고 재해독해 받아들임으로서, 선택받고 순명하는 기독교인으로서 이상적이고 일관성 있는 자아를 완성시키고자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메리 베쓰 로우즈(Mary Beth Rose)가 지적하듯, 쏬턴의 자서전은 죽음과 부활, 고난과 구원의 성서적인 사이클을 채택하고 있다(260). 따라서 독자는, 이 여성작가가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방식에서, 연속적인 고난을 통해 기독교적 자아를 완성하는 근대 초기 영국 문학과 종교적 전통을 어렵지 않게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쏘턴이 고통을 인식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동시대 남성 작가들의 방식과는 두드러지게 차별된다. 이 여성 작가에게 있어 영적 구원에 이르는 속세의 고난이란, 인간 일반이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보편적인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녀가 경험하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바로, 생산하고 양육하는 “여성”의 몸이 필연적으로 경험할 수 밖에 없는 산과 및 부인과 질병들과, 그러한 질환들을 필사적으로 감당하면서 힘들게 낳아 기르던 자녀들을 연달아 잃게 되면서 겪게 되는 상실감이다. 따라서, 쏘턴이 경험하는 가장 벅찬 구원의 순간 역시도, 모성적 의지를 냉혹하게 꺾어버리는 불가해한 신의 섭리를 인간의 언어를 통해 설명하고, 느닷없이 엉망으로 흐트러진 것처럼 보이는 자신의 삶에 질서를 다시 부여하는데서 온다.

다시 말해 쏘턴의 자서전은, 어머니 된 자신의 몸을 통해 신의 권위를 빌리고 어머니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완결된 자아를 재현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며, 여성의 몸과 여성적 경험을 강력하고 일관되게 옹호하는 차별적 글쓰기로부터 나온 결과물이기도 하다. 결국, 작가는 이 자서전을 통해서, 모성적 경험을 포함해 여성 경험 일반을 열위에 놓는 근대 초기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해 간접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쏘턴의 독자들은, 젠더 이데올로기에 상당부분 기대 재생산되던 근대초기의 사회, 종교적 권력 관계가 이 여성 자전작가의 차별적 글쓰기로 인해 어떻게 그 불균형성을 드러내는지 궁극적으로 같이 논할 수 있을 것이다.

2.

서두에서 이미 언급했다시피, 쏘턴의 자서전을 읽어 내리다 보면 독자는, 근대초기 영국 사회에서 일상으로부터 겪을 수 있는 일은 사고와 질병이라는 우울한 뉴스밖에 없었던 것인지 심각하게 의심하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위기의 순간들은 언제나 적시에 개입하는 신의 은총으로 극복이 되고, 그녀의 자서전은 “주님이신 나의 하느님께 이 위대한 구원에 대해 영혼을 쏟아 부어 겸허하게

감사드리고, 이제 그분의 몸중으로 영원히 그분을 섬기고 칭송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시오 간청드리는데(To the Lord my God, therefore, doe I poure out my soule in humble gratitude for this great preservation, beseeching Him to accept of me now His hand-maide both to serve Him and praise Him for ever, 5)” 찬양과 헌사로 바뀌게 된다.

넘어져서 깨진 머리통이 “신의 은총과 어머니의 치료로 회복(by the Providence of God, and my deare mother’s skill and caire of me, 4)”되었던 첫번째 에피소드로부터 시작해서, 이 작가의 영유아기는 크고 작은 병들과 사고들로 목숨이 위태로웠던 순간들과, 절박한 순간에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신의 섭리에 대한 감사가 끊임없이 교차되는 현장이다.²⁾ 쏜턴의 회고에 따르면 어린 시절의 그녀는 1630년 부모 부재 중 숙모 집에서 식중독으로 크게 앓다 회복되었고(5), 1631년에는 천연두를 앓고 가까스로 회복되었으며(6), 같은 해 화재를 당했으나 살아나고(7), 익사할 뻔했지만 구조된데 이어(9), 1637년에는 낙상에서 무사히 완쾌된다 (10). 아일랜드로 부임한 아버지를 따라 갔던 더블린에

2) 이 논문은 Alice Thornton, A. (1875). *The Autobiography of Mrs. Alice Thornton, of East Newton, co. York* (Durham [Eng.] Pub. for the Society by Andrews and Co.)를 주 텍스트로 사용한다. 앞으로의 인용들은 이 텍스트에 따르며, 인용되는 쪽 번호는 본문에서 괄호 안에 표시한다. 레이먼드 앤셀먼트(Anselment, R)는 19세기의 편집본이 세 권의 매뉴스크립트를 연대기적 순서에 따라 선별적으로 삭제하고 재편집해서 한권의 책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원본이 본디 가졌던 복잡하고 역설적인 관계들을 미처 다 전달하지 못하고, 수상쩍다 싶은 작가의 의도나 모순 되는 목소리 역시도 일정 부분 그 생생함을 잃었다고 지적한다 (138). 앤셀먼트의 주장이, 다수의(분실된) 판본을 갖고 있는 텍스트를 함부로 단순화시키거나 일원화시키는 비평 작업에 대해 우리는 경고음에는 확실히 귀 기울일 일이다. 그러나, 이 논문의 주요 관심이 쏜턴이 끊임없이 내세우는 모성적 육체의 경험과 영적 권위 간의 필연적 의존 관계 — 임신과 출산의 경험이 비정상적으로 극심하면 할수록 더욱 공고해지는 — 를 읽어내는데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손으로 잡힐 듯 생생히 묘사된 임신과 출산의 현장을 상당부분 잘라낸 19세기 판본(139-40)은, 원저자가 고집하는 모성과 신성 간 관계를 원본 이상으로 과장해서 전달하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독자 접근성을 위해 여기서는 원본이 아닌 편집본을 주텍스트로 사용하도록 한다.

서도 그녀의 인생이 순탄치 않았는데, 1638년 화재를(11-12), 1639년에는 난파를 겪는다(13). 1640년 아버지의 사망과 아일랜드 폭동을 겪으며 간신히 살아남은 이후에도(28) 사고와 질병은 끈질기게 그녀를 따라다녀서 1642년에는 천연두로부터, 1643~4년에는 스코틀랜드 전쟁으로부터(44), 1644년에는 의사할 뻔했던 현장에서 도망쳐 나오고, 1647년에는 탐 빙크스(Tom Binkes)라는 불한당과 강제 결혼할 뻔했지만 가까스로 탈출한다(47).

앞서 이미 언급했다시피, 이 17세기 후반의 여성작가 일관되게 보여주는 질병과 죽음에 대한 집착과, 자신의 인생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만 점철된 고난의 길로 재현하려 했던 강박적인 노력은, 극한의 고난을 인내하는 순교자로서의 자아를 완성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로우즈 261). 다시 말해 쏘턴은, 동시대인들에게 친숙했던 기독교적 역설법을 구사하고 있는 셈인데, 독자들은 생사를 논하는 근대초기 다른 작가들에게서도 유사한 종류의 역설적 시도를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쏘턴보다 한 세대 이전 작가였던 존 던(John Donne)이 17세기 초반에 남겼던 질병과 고난에 대한 묵상을 보더라도, 화자는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기쁜 마음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이상적 기독교인의 태도를 체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고통은 보물과 같아서 아무리 많이 받아도 여전히 모자라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든 충분히 고통 받고 나서야 완전히 자라고 숙성되어 신에 어울리는 존재가 된다. 어떤 사람이 병이 들어 죽을 정도로 앓는다고 해도, 이 고통은 마치 광산 안에 묻혀있는 황금처럼 창자 안에 들어앉아 그 당사자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그의 고통에 대해 듣고 그 황금을 캐내어 내가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³⁾

3) [...] for affliction is a treasure, and scarce any Man hath enough of it. No man affliction enough, that is not matured, and ripened by it, and made fit for God by that affliction. Another Man may sicke too, and sicke to death, and this affliction may lie in his bowels, as gold in a Mine, and be of no use to him; but this bee that tels mee of his affliction, digs out and applies that gold to mee. (Meditation 17, *Devotions upon emergent occasions*)

던이 고통을 받아도 받아도 충분치 않은 신의 은총으로 해석하듯이, 쏜턴 역시도 자신이 겪는 고난들을 신의 담금질과 베희질로 받아들인다. 부친의 사망을 기점으로 해서, 쏜턴은 보다 심각하게 자신의 인생을 흔들어놓게 되는 일련의 죽음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죽음들은 바야흐로 그녀의 개인적 의지와 삶에 대한 통제권을 어이없이 꺾어놓게 될 정략결혼에 대한 예고편이며, 동시에 그녀가 신의 자녀로 성숙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녀는 1645년에는 여동생을 (49) 1646년에는 외숙부 (54) 1651년에는 오빠를 여윈다(57). 연이은 가족들의 죽음과 더불어 그녀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뒤틀어 놓은 또 하나의 죽음이 더 찾아오는데, 바로 쏜턴이 “순교자(martyr)”로 기리는 찰스 2세(Charles II)가 처형 당했다는(1648) 소식이다(56). 청교도 혁명 와중에서 왕당파였던 쏜턴의 친정은 이후 크롬웰 정부에게 토지를 압류당하는 등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집안의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으로 큰 딸 앨리스에게 정략 결혼을 강요하게 된다(75-83).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쏜턴은 결국 결혼에 동의하게 되지만, 그녀가 이 과정에서 느꼈을 법한 분노와 좌절은 가문을 위해 의무를 다하는 이상적인 딸의 목소리 아래서도 분명히 드러난다(로우즈 263-4). 자서전의 화자는, “결혼에 대한 내 의향과는 정반대되게(contrary to my inclination to marriage, 62)” 지체 낮은 상대와 혼약한다던지 “신중하게 생각해보지도 않고 내 자유로운 신분을 서둘러 바꾸고 싶지 않았다”(I was not hastie to change my free estate without much consideration, 76)고 거듭 되풀이하고 있다. 자신의 개인적 소망이나 의지가 전혀 통하지 않는 궁지에 몰린 쏜턴이 분노와 좌절을 극복하는 방식은, 이전에 질병과 사고와 죽음에 대응하던 방식과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녀는 이 위기를 신의 의지로 치환해 받아들이고, “이 결혼을 통해 나를 여러 친지들에게 도움을 주는 공공의 도구로 쓰시는 것이 신의 뜻이라면(And if it pleased God to dispose of me in marriage, making me a more publicke instrument of good to those severall relations)” 더욱더 공고한 기독교인으로 거듭나기 위해(I more capacitated to serve Him in this generation) 그 뜻에 따르기로 했다고 슬회하고 있기 때문이다(77).

결혼 생활에 대한 쏘턴의 회고는, 결혼 당일 죽을 뻔하다 살아났다는 상징적인 에피소드와 더불어 시작된다(83). 이제 그녀의 자서전은 어머니가 쓰는 회고록으로 바뀌고, 순탄치 못한 삶과 일견 강박해 보이는 신의 섭리는 어머니가 된 그녀의 몸을 통해 현현된다. 그녀가 결혼 생활 중 겪었던 각종 어려움에 대한 시시콜콜한 기억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빈번한 출산을 거치며 본인이 앓았던 각종 병과 그 증세 및 예후에 대한 상세한 기록들과, 자녀들의 병력과 죽음에 대한 목상이다. 쏘턴이 끊임없이 임신하고 출산하고 몸져누워 있는 동안 그녀의 아이들 또한 계속 다치거나 아프기를 반복한다. 즉, 네일리(Naly)가 몹시 앓다가 완쾌되었다거나(128) 케이트(Kate)가 질식사할 뻔했다거나(129) 캐서린(Katherine)과 엘리스(Alice)가 천연두를 앓았다거나(157-8) 로버트(Robert)가 죽을 뻔했다거나(170) 하는 이야기들이 자서전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삶과 죽음이 교차되는 순간이 그녀의 아이들에게도 예외일 수는 없어서, 쏘턴이 17년의 결혼생활에서 얻었던 아홉 자녀 중 여섯은 영유아기에 세상을 떠난다.

임신과 출산, 아이들의 투병과 사망에 대한 기록 사이사이에는 다른 사건과 죽음의 소식들도 단편적으로 끼어들기도 하지만,⁴⁾ 이제 쏘턴의 주된 관심사는 자신이 매번 출산 전 얼마나 두려워했으며, 출산 전후 얼마나 심하게 앓았지만 살아났는지, 애지중지해마지 앓는 아이를 데려가는 신의 손길을 자신은 어떻게 당연하게 받아들였는지를 설명하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쏘턴은 이제 겨우 6개월을 갓 넘긴 딸의 죽음 앞에서도 언제나처럼 의연하게 신의 뜻을 찬송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되살려 낸다.

오랫동안 구루병과 폐결핵을 앓고 있던 내 소중한 아기 베틀을 나한테서 데려가시는 것이 신이 뜻이었다[...]. 모든 치료법을 다 써봤고 그 애를 네일리와 같이 성 먼그노의 우물[치유 성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샘물]에도 데려가

4) 어머니로서의 삶에 대한 기록 중간 중간에는 시부 사망(93), 모친 1659년에 사망(122), 차알스 2세 복위(127), 남편이 익사할 뻔했지만 구조됨(144), 남편의 중풍(150), 1666년 동생 사망(159-64) 등등의 소식이 사이사이 끼어들어 있다.

보았지만 베티는 점점 더 허약해지고 마침내는 폐를 상할 정도로 격심하게 기침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우리는 지극정성으로 다해 내 소중한 갓난아기의 영혼을 들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손에 바쳤고, 그 아이는 편안하게 잠이 들어서 마치 어린양처럼 이 비참한 세상을 뒤로 하고 떠났다.⁵⁾

쏜턴은, 태어난지 한달도 안된 막내 크리스토퍼(Christopher)를 천연두로 잃고 난 후에도, 자식을 지키고픈 자신의 의지를 가차 없이 꺾고 아이를 앗아가는 냉혹한 신의 의지에 대해, 역시나 유사한 논리를 펼쳐가면서 애절한 심정을 털어 누른다.

그러나, 내가 너무 지상의 축복에만 마음 두지 않도록, 무한한 지혜의 하느님께서 그 애[크리스토퍼]를 내게서 데려가심으로서 나로 하여금 두려움을 깨우치고 신의 섭리에 완전히 복종하도록 하심이 좋겠다고 보셨다. 나는 삶에서나 죽음에서나 그분의 뜻이 내 뜻과 같게 되도록 간청 드렸고, 내게 좋은 일을 나보다 더 잘 보시는 경애하고 사랑 넘치는 아버지 하느님께, 내 소중한 아이를 인내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떠나보내고자 노력했다.⁶⁾

5) It pleased God to take from me my deare childe Betty, which had bin long in the riketts and consumption [...]. And notwithstanding all the means I used, and had her with Naly at St. Mungno's Well for it, she grew weaker, and att the last, in a most desperate cough that destroyed her lunges, she died [...] we allso did with great zeale deliver up my deare infant's soule into the hand of my heavenly Father, and then she swetly fell asleepe and went out of this miserable world like a lamb (94-5).

6) But, least I should too much sett my heart in the satisfaction of any blessing under heaven, it seemed good to the most infinitt wise God to take him [Christopher] from me, giving me some apprehensions thereof [...] with a full resignation to His providence, I endeavoured to submit patiently and willingly to part with my sweete childe to out deare and loveing Father, Who see what was better for me then I could, begging that his will might be mine, either in life or death (165).

이처럼, 자신을 일평생 따라다녔던 “근심(caires)”과 “극한 상황들(extremities)”, 자신의 몸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몸에 내려지는 고통들이 모두 신의 내려주는 은총의 다른 얼굴이라고 합리화할 수 있게 되는 순간으로부터 쏘턴의 자전적 글쓰기가 시작되고, 이 글쓰기를 통해 그녀는 “주님의 겸허한 중”으로 다시 나게 된다.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신 횃수는 기억할 수도 없을 만치 많지만, 그분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해, 가능한 한 생각나는 대로 다 떠올려 보겠다 (The number of His miraculous deliverances are past finding out, yett will I call to mind what I can, that He might receive the glory of all, 3)”는 자서전의 서언은, 바로 그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내러티브가 충분히 진행되어 고난의 기억들이 충분히 쌓아올려진 이후, 이 자전적 화자는 “이것이든 또 다른 걱정들이든, 내게 무슨 일이 생기던지 내 유일한 생명 이시며 지지대이자, 보호자이자 구원자이신 나의 하느님께서서는 그의 가장 은혜롭고 권능하신 섭리의 손길로 언제나 나를 살피 주신다[...]*whatever befaller me, this or other consernes of my life, the Lord my God, Who is my only life and support, preserver and deliverer, doth still shew His most gracious and might hand of Providence over me (136)*”고까지 장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의 서두에서 이미 지적했던 것처럼, 육체가 통감하는 고통을 종교적인 은총으로 인식하고 이상적 자아가 완성되는 과정으로 보았던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쏘턴이 자신의 몸을 통해 “자아”를 인식하는 방식은 당대의 남성 작가들이 그들의 육적인 경험을 통해 “자아”를 의식하는 방식으로부터 명확하고 중요한 차이점이 보인다. 예를 들어, 던이 성차와 무관한 질병과 그로 인한 심신의 고통에 천착했다면, 쏘턴의 경우 “고통받는 몸”은 구체적으로 여성의 몸을 의미하며, 그중에서도 주로 임신, 출산, 수유, 양육을 감당해내야 하는 모체로서 여성이 겪는 고통, 질병, 죽음에 대한 공포와 상실감 등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쏘턴에 있어 이 어머니로서의 몸은 자신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체험하는 몸시 구체적이면서도 극한에 이르는 공간이 되고, 시종일관 질병과 죽음의 문턱에 서서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녀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내가 지나가야할 슬픈 상태와 내 영혼이 맞닥뜨리게 될 위험스런 고난들을 죽음의 문간에서 환기”시켜주는(and then the pangues of childe-bearing, often remembering me of that sad estate I was to passe, and dangerous perills my soule was to find, even by the gates of death, 145) 계기로 분명하게 받아들인다.

내가 아홉째 아이를 가졌을 때 병약한 시간을 보냈던 것은 주님의 뜻이었다 [...] 신이 보시기에 좋다면 이런 [몹시 병약한] 상태가 아니었으면 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선택을 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몫이 아니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은 우리들 자신의 소망과 달라서도 아니된다. 그러므로 나는 이 처분에 순응하고 내 생명 보존 여부에 대해서는, 극한의 고난 속에서 언제나 나를 구해주셨던 그분의 섭리에 따르게 되기를 소망했다[...] 아홉 번째 아이의 출산은 굉장히 위험했으며, 11월 4일경에 진통에 들어가서, 앓아누워서, 계속 그렇게 병약한 상태로, 거의 목숨을 건지지 못할 뻔했다.7)

그 외에도, 쏜탄은 출산 후 하혈이라든지, 세상을 떠난 아이에게 수유하다 입은 상처 때문에 몹시 고생하는 장면들에 대해서도 상세하고 생생하게 기술하고 있다.

내 소중한 아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나는 유방이 부풀어 오르는 통에 오랜 기간 동안 기운을 심하게 잃게 되었다. 아이가 앓는 와중에 마지막으로 오른쪽

7) Of my ninth childe it was the pleasure of God to give me a weake and sickely time in breeding [...] if it had bin good in the eyes of my God I should much rather [...] not to have bin in this[very sickly] condittion. But it is not a Christian's part to chuse anything of this nature, but what shall be the will of our heavenly Father, be it never soe contrary to our owne desires. Therefore did I desire to submitt in this despensation, and depend uppon His providence for the preservation of my life, Who had delivered me in my extremities and afflictions [...]. The birth of my ninth childe was very perillous to me, and I hardly escaped with my life, falling into pangues of labour about the 4th of November, beeing ill, continueing that weeke [...](165).

젖을 물면서 젖꼭지에 상처를 내놓은 것이 끓는 통에 지독하게 고통스러웠을 뿐 아니라, 열이 올라서 두통과 치통도 몹시 심했고, 고통스러울 때 위안이 되리라 여겼던 사람들의 마땅치 않게 오만한 태도에 슬퍼하던 차에, 그것이 내 병약한 상태를 가장 크게 좁먹게 되었던 것이다.⁸⁾

이같이 반복되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 속에서, 원치 않았던 정략결혼으로 맺어진 남편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쏘턴과 자녀들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몰아넣은 주범이 된다. 그녀는, “내 위험했던 와병의 순간(my dangerous sickness)”라고 부르고 있는 에피소드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최근에 임신을 했었기 때문에[...] 이와 함께 집에 돌아오는 길에, 콜빌이 내 아이들의 양육비와 상속분에 대해 내렸던 결정과 관련해 시름거리가 생겼다. 그 결정이 내가 동의한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상황에서 취소되어서[...] 가엾은 내 두 딸 앞으로는 단 한푼도 남겨진 것이 없었다[...]. 이 사건 이후, 나는 몹시 우울하고 절망스런 상태가 되어서[...] 위티 박사가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도 오랫동안 그 위중한 정도가 계속되었다.

현세의 위안과 허영에 더 이상 정붙이지 않고 현세의 고난으로부터 해방되어 영면의 품속으로 안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죽음 그 자체가 탐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기독교인인 어머니이며 아내로서 정성과 신심을 다해 소중한 남편과 아이들에게 다해야 할 할 의무가 있었다[...].⁹⁾

8) After my deare childe's death, I fell into a great and long-continued weakenesse by the swelling of my milke, he having sucket last, in his paine, of the left breast, had hurt the nipple, causing it to gangareene, and extreame pained with torment of it, made me fall into a feavour, which, together with excessive paines in my head and teeth, uppon much greife from the unhansome proud carriage of those I tooke to be a comfort in my diestresse, proved the greatest corisive in my sicke and weake condittion, (166)

9) [...] being lately conceived before [...]. So this together with a griefe that befell me at my returne home, about a settlement last made by Colvill for my children's maintenance and portions, which had bin undon, without my consent and knowledge [...] there was not one penny could be secured for my two poore daughters[...]. After this happened, I fell into a very sad and desperat condition [...] the violency thereof continued a long time affter

박탈당하고 고통받는 딸이며 어머니이자 아내였던 쏜턴이 그나마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최상으로, 내게 좋은 결과가 되게 바꾸시어, 나로 하여금 속세의 행복을 너무 바라지도 않고 신께서 내려주신 애정 넘치는 남편이긴 하지만 그가 위안을 베풀어 주리라 너무 기대하지 않고, 나의 주인이신 하느님의 사랑에 더 많은 희망을 두도록 하실 수 있으셨다(God was able to turne all things for the best, and to my good, that I might not build too much hopes of happinesse in things of this world, nor in the comforts of a loving husband, whom God had given me, but sett my desires more upon the love of my Lord and God, 84)”는 것이다. 따라서, 점점 더 많은 고뇌와 고통, 박해를 견디고 나가면 나갈수록, “이 고통의 불길이 내 죄의 찌끼를 걸러내는 도구가 되(Make this fire of affliction instrumentall to purge the drosses of all my sinns, 90)”어 그녀의 심신을 정화하고, 그녀는 신에 더욱 가깝게 다가가 고통과 박해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을 정도로 공고해진 권위와 권력을 차지하게 된다. 이에 그녀는 가장 비천하기 때문에 가장 고귀해진 존재로 거듭나고, 그 영광을 다음과 같이 다시 신에게 돌림으로서 자신의 재탄생을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한다.

그분의 피조물이자 보잘것없는 하녀에 지나지 않는데도 이슬처럼 내리는 그분의 은혜를 맛보았을 뿐 아니라 머리 위로 총만하게 강물처럼 계속 흘러넘치는 선의를 받았던 나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가여운 피조물인 내게 생애 처음부터 베풀셨던 그분의 헤아릴 수 없는 선의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이해하고 진심으로 목상하고 감사로 내 가슴을 채우기를 가장 겸허하게 소망한다. 그리고 진심에서 우러나는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그 분께 그 모든 영광을

Dr. Wittie was with me[...]

Death in itselfe being desirable to those whoes affections had come to be weaned from the comforts and vanities of this life, wishing to be freed from this world's troubles and to be receved into the armes of everesting rest; yet, as a Christian wife and mother, was there a duty incumbant upon me to discharge with faithfullnesse and godlinesse towards my deare husband and children [...](152).

감사히 돌리기를 희망한다.¹⁰⁾

흥미로운 것은, 쏘턴이 고통을 수용하고 신의 은총을 입는 데 있어 포용적이라기보다는 극히 배타적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자면 쏘턴은 앞서, 앞서 언급했던 던의 명상록과 비교해 보더라도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던은, 타인의 고통을 통해 더불어 성숙하는 경험을 강조하며, 한 인간이 겪는 고통은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동시에 고통을 직접 겪을 기회가 없는 다른 개인에게까지도 같은 효과를 미쳐 그 역시도 신의 자녀로 새로 나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얘기한다. 반면 쏘턴은, 자신이 직접 겪는 고난은 물론이고 타인이 겪는 고통마저도 전적으로 자기의 성숙만을 위해 하늘이 내린 것이라고 해석하는 듯하다. 따라서, 쏘턴은 자아를 확립시키기 위해 고난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투쟁적이며 경쟁적이다. 그녀는 언제나 제일 많이 괴롭고 제일 많이 아픈 사람이 되려고 하고, 이웃이 아프거나 남편이 아플 때 그녀는 갑자기 몇 배 더 심각하게 앓거나 사고로 몸져눕는다.

그러나 로우즈가 지적하다시피, 병자로서의 쏘턴의 모습에는 아이러니가 있는데, 이 자전 작가는 자신을 ‘고통을 통해 신에게 선택받은 자’로 세우기 위해 “약하고, 병들고, 가여운 존재로 창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강했고 오래 버텼고”, 남편과 자식들을 떠나보내고 나서도 80세까지 장수했던 “생존자”였기 때문이다(anxious to create herself as weak, sick, and pitiful, Alice Thornton was in fact tough and enduring, a survivor, 263). 또한, “물래 나를 미워하고(secrett hatred against me)” “헐뜯는(slanderous tounges)” 주변인들에 대한 그녀의 불평을 듣자면, 이 자전작가가 실제로는 과연 얼마나 심각하게 병에 시달렸던 것인지 역으로 물을 수 밖에 없게 된다. 쏘턴이 막내를

10) I therefore, His create and unworthy handmaide, who have not tasted (only) of the droppings of His dew, but has bin showred plentifully upon my head with the contineued streames of goodness, doe most humbly desire to furnish my heart with the deepe thoughts and apprehensions and sincere meditations of and thankfullnesse for his free grace, love, mercys, and inconceivable goodness to me His poore creature, even from my first beginning; and. with a most cordiall and sincere heart, thankfully doe returne Him the glory of all; (1)

않고 나서 석 달 이상이나 거동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앓았다고 얘기하는 시기에, “내[쓴턴의] 평화와 고요함을 망치고, 진짜로 병약한 내 상태에 대해 비웃으며 얘기하고, 내가 전혀 아프지 않으며 자기만큼이나 건강하다고 말해서, 나를 이웃사이에 애깃거리로 삼았^{she undermined my peace and quiet, and scornfully presenting my reall weakensse, saing that I ailed nothing, and I was as well as she, and made myselfe a talke to my neighbours (167)}”던 사람은, 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3.

쓴턴은 여성이자 어머니인 자신의 몸을 최대한 낮추어 가장 비천하고도 겸허한 신의 종이 된 증거로 쓰는 한편, 실제로는 그 과정에서 거듭되는 “그것은 신의 뜻이라(As it pleases God to[...])”는 선언을 통해 다른 인간들은 감히 도전할 수 없는 권위를 획득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신의 뜻을 되풀이해 빌려 쓰는 쓴턴의 자기정당화나 본인의 질병에 대한 지나치게 상세한 기록이, 독자로 하여금 전적으로 공감이나 연민을 느끼게 하기 보다는, 때로 난처하거나 당황스럽고, 심하게는 짜증스럽거나 의심스럽다는 느낌을 준다면, 이는 당시 모체와 산과계통 질병에 대한 글쓰기는 신의 섭리를 빌어올 때나 겨우 가능해지는 작업이었지만, ‘신의 섭리를 여성들에게 정당화하는’ 방식의 글쓰기가 호락호락하지도 않았고, 그러한 글쓰기를 통해 표면으로 떠오른 여성의 자이는 쉽지도 그닥 매력적이지도 못했다는 사실에 대한 반증인지도 모른다.

쓴턴의 글쓰기는, 근대초기 여성의 몸과 모성에 대한 지배적인 관점과의 연장 선상 위에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근대초기 남성 중심적 담론에서, 여성의 몸은 언제나 ‘이미 오염되었거나’ ‘곧 오염이 되어버릴’ 대상으로서 자리한다. 여성의 몸은 대부분의 경우 남성욕망의 대상이거나, 위험스런 성적욕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서 취급되었으며, 정숙한 여성의 몸에 대한 강박적인 욕망과, 정화될 수 없는 여성의 몸에 대한 근거 없는 공포 등

등은 근대 초기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 남성 담론을 구축하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솔즈 10). 이 시대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마녀 재판이나 간통녀에 대한 극중 처벌 등에서 볼 수 있듯, 타락한 여성성에 대한 당대의 강박적 관심은, 도덕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자신이 지키고 있는 자리를 확신하지 못하고 제도권에 대한 비타협성을 병적으로 견제할 수 밖에 없었던 남성들의 불안감을 역으로 반영한다고 할 수도 있다(바스토우 129-39; 뉴먼 54).

결국, 그것이 실제인지 상상인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여성의 몸이 ‘위험하고 오염되었으며 따라서 열위에 놓여야 하는 대상’이라는 결론은 남성 자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부각되는데, 이는 단지 ‘성적 대상 또는 금지된 욕망의 주체로서의 여성의 몸’에 국한되지 않으며, 2세를 생산하고 양육하는 어머니로서의 여성의 몸에 대해서도 유사한 종류의 성차별적인 해석이 가해지는 것이다. 토마스 라커(Thomas Laqueur)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근대초기 저술가들은 2세기경 저명한 해부학자로 활동했던 갈렌(Galen)의 학설을 이어받은 당대의 의학 의론을, 남녀의 성차와 여성의 열위를 입증하기 위해 재해석한다(26-7). 이 주장에 따르면 여성과 남성의 신체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고, 따라서 여성은 근본적으로는 남성이지만 다만 완전무결한 인간의 몸을 만들기 위해 필수적인 열기(vital heat)가 결여되어 남성은 몸밖에 가지고 있는 생식기관을 몸안에 담아두고 있는 미완성된 몸이라는 것이다(라커 4).

‘상대적으로 차갑고 불완전한 여성의 몸’에 대한 해부학적인 증명은, 성차에 따른 분업과 사회적 역할 분담을 옹호하는 남성 우월론적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연과학적이며 해부학적인 객관적인 증거로서 이용되었다. 여성의 생산행위 역시도, 이 ‘상대적으로 차갑고 불완전한 몸’이 필연적으로 보이게 되는 생리적 현상들과 연결되어 설명되었는데, 차가운 몸 안에서는 뜨거운 기운이 쉽사리 응결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결과 여성만이 경험하게 되는 생리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특히나 임신, 출산, 양육 과정들과 관련되는 체액들이 과도하게 배출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게일 켈 패스터(Gale Kern Paster)가 논하고 있는 것처럼, 2세를 낳아 기르는 몸과 관련 있는 체액들, 즉 유즙, 경혈, 요실금 등은 근대초기 논쟁들에 있어 대체로 불완전하거나 불결하거나 수치스러운 것들도 폄훼되